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슬로베니아 트리글라브 국립공원 르드니차 숲

글·사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슬로베니아는 중앙 유럽 남부에 있는 나라로 알프스산맥 끝부분과 지중해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남동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북동쪽으로는 헝가리, 북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슬로베니아 면적은 2만km², 인구 200만명 정도로 면적은 우리나라의 1/5, 인구는 우리나라의 4% 정도로 면적과 인구가 적은 국가로 수도는 면적 164km², 인구 33만명의 류블리야나(Ljubljana)이다. 슬로베니아 국토의 40% 정도가 산지나 고원 등 고지대로 내륙에 분포하고 있다.



사진 1 = 류블리야나(Ljubljana) 시내 전경

국토의 63%가 숲, 농경지가 30%를 차지한다. 주요 수종은 너도밤나무(32%), 가문비나무(30%), 전나무(7%), 참나무(9%), 소나무(5%), 기타 활엽수(14%)로 활엽수가 56%, 침엽수가 44%로 활엽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너도밤나무와 가문비나무가 거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트리글라브산(Triglav, 2864m)으로 이 지역은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보호받고 있다.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은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198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슬로베니아의 북서부에 있으며, 트리글라브 산은 국립공원의 중앙, 줄리안알프스(Julian Alps)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국립공원의 면적은 88,000ha로 국토의 4%를 차지하고, 최고봉은 트리글라스 산이다. 가장 낮은 곳의 해발고는 180m로 고도 차이가 2700m에 달하며, 해발고에 따라 다양한 숲들이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숲을 이루는 주 수종은 너도밤나무, 독일가문비나무, 구주낙엽송이고 고산지대에서는 독일가문비나무, 구주낙엽송, 무고 소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고 건조지에는 유럽새우나무(*Ostrya carpinifolia*). 마가목 등이 자라고 있다. 국립공원의 호수는 모두 빙하에서 유래되었으며 이중 가장 큰 호수는 보힌(Bohinj) 호수로 국립공원 남동쪽 외곽에 있다. 보힌 호수는 해발 526m, 길이 4100m, 최대 폭 1200m, 최대 깊이 45m, 내수면 면적 318ha이다.



사진 2 = 트리글라브 국립공원 고산지대 전경

보힌 호수 동쪽에 있는 보힌계곡은 야생화로 유명한데 보힌 계곡을 상부와 하부계곡으로 가르는 높이 926m의 루드니차 봉우리는 계곡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보힌 호수를 뒤로하고 보힌 계곡을 따라 루드니차 봉으로 가는 길은 농경지와 초지가 어우러져 있는 평지 길로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있어 마치 꽃길을 걷어가는 것 같다. 계곡 좌우 산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는데 사면 아래쪽으로는 너도밤나무가 능선 쪽으로는 독일가문비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은 해발고와 사면 위치에 따른 수종들의 분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길 오른쪽에 있는 루드니차 쪽으로는 짙은 초록색의 독일가문비나무가 뽕뽕하게 자라고 있는데 절벽 주변에 앙상한 줄기의 독일가문비나무 고사목이 듬성듬성 서있는 모습이 특이하게 보인다.

계곡 평지 길을 지나 산 쪽으로 오르다 보면 초록빛 초원과 숲 경계 부분에 과수원 원두막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보인다. 이 구조물은 사냥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 시설로 임연부에 주로 세워져 있다. 초원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서면 급경사임에도 너도밤나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자라고 있으며, 굽기가 한 아름이 넘는 너도밤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너도밤나무가 자라고 있는가 하면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은 자연 그대로의 숲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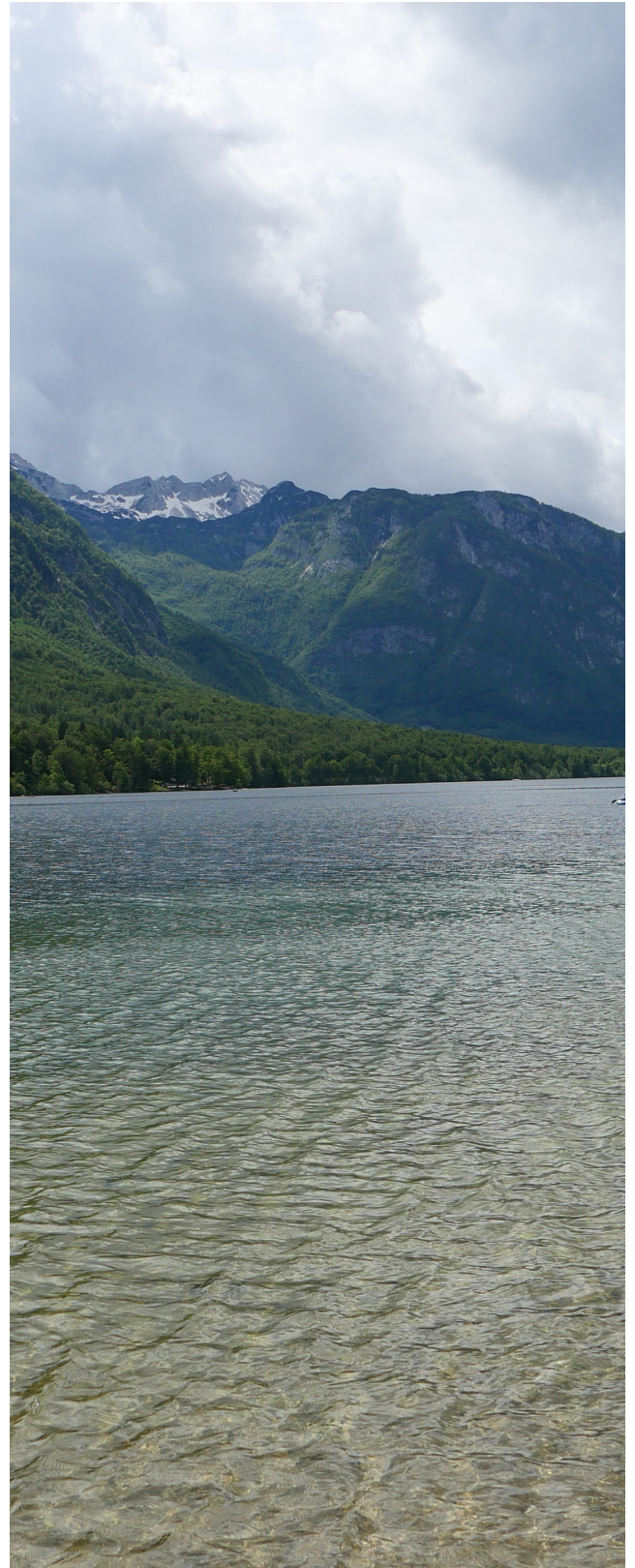


사진 3 = 보힌호수 전경



사진 4 = 초원과 숲 경계부 전경과 사냥시설
 사진 5 = 사면부의 너도밤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 숲

루드니차 꼭대기에 도달하여 보힌계곡을 보면 널따란 계곡에는 가운데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농경지와 초지가 있다. 산 아래쪽으로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뒤편 산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 산악지역의 전형적인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산 건너편 트리글라스 산 쪽을 보면 하얀 눈이 덮인 산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이 지역이 고산지대임을 보여준다.







너도밤나무 맹아림은 과거에 너도밤나무숲을 이용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멀리 보힌 호수가 보이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의 모습 정겨워 보인다. 호수 가에서 멀리 보이는 주변의 산은 해발 2,000m 내외의 산으로 가까이에는 프르시베츠(Prívec, 1761m), 마하브슈체크(Mahavšček, 2008m) 산 등이 있다.

사진 7 = 보힌 계곡 전경



사진 8 = 너도밤나무 대경목 숲



사진 9 = 너도밤나무 중경목 숲





산 하부에는 너도밤나무 활엽수숲, 중간 부분은 독일가문비나무·활엽수 혼효림, 상부는 독일가문비나무, 구주 낙엽송 침엽수림이 자리 잡고 있어 해발고에 따른 수종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르드니차 숲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보힌 계곡의 야생화, 울창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너도밤나무 숲 그리고 보힌 호수와 함께 다양한 경관을 갖춘 숲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숲이 유지되고 보호가 되어야 할 자연 자원이다.



사진 10 = 산으로 둘러싸인 보힌 호수

사진 11 = 보힌호수 주변 고산지역 숲 분포



사진 12 = 급경사지의 쓰러진 너도밤나무